

칼럼 / 박준모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어촌비즈니스, 어촌 경제활성화의 대안

일자: 2025-08-08 10:22

수정: 2025-08-24 20:29



우리나라 어촌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20여년 전부터 우리나라 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촌지원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어촌주민 중심 경영체 운영

그러나 어촌 경제는 살아나지 못하고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 2015년 12만8,000명이던 어가인구가 2024년에는 8만7,000명으로 32.0% 감소했으며 어가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도 2015년의 30.5%에서 2024년에는 50.9%로 상승했다. 이와함께 어가부채 대비 어가소득 비중도 2015년의 1.05에서 2024년에는 0.82로 하락하여 어가의 부채문제가 심각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귀어인의 숫자도 2015년 1,446명에서 2024년에는 712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귀어인 중 60세 이상의 비중이 2015년 18.7%에서 2024년에는 31.6%로 상승하여 귀어인의 고령화 수준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어촌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촌지역에 일자리가 충분해야 하며 정주여건이 개선되어 어촌에서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어촌의 상황은 일자리도 충분하지 못하고 정주여건도 확충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다. 어업소득은 조금씩 상승하고 있으나 어업소득의 변동성이 크고 초기 비용이 많이들어 외부에서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어촌의 중심지가 쇠락하면서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청·장년층이 쉽게 이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어촌의 일자리가 먼저인지, 정주여건 개선이 먼저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으나 일자리가 많아져서 인구가 증가하면 생활편의시설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는 일 자리를 늘리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판단된다. 어촌에서 어업소득 이외에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촌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그러나 어촌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외부에서 어촌에 투자하여 비즈니스를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어촌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은 어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경영체를 만들어 어촌비즈니스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어촌비즈니스는 어촌 지역이 보유한 자연적, 인적, 문화적 자원 및 유무형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어촌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며, 어촌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모든 경제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어촌에서 어촌 주민들을 중심으로 어촌비즈니스를 활성화하는 것은 어업외 소득의 증대, 일자리 창출과 이에따른 인구 유출 방지, 어촌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촌공동체 유지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다.

어촌 자원 효율적 활용 필요

어촌비즈니스는 다양한 형태로 수행할 수 있다. 어촌계를 중심으로 수행할 수도 있고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또는 마을기업의 형태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사업대상도 어업활동 이외에 수산물 가공·유통, 어촌관광, 숙박 및 외식, 사회적경제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할 수 있다.

‘인천 옹진군 연평마을’은 다리가 떨어지거나 꺾데기가 깨져 상품성이 없는 꽃게를 활용하여 육수 팩과 꽃게장 등 특화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마을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제주시 김녕리마을’은 해녀체험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관광객과 방문객수가 늘어났고 마을 소득이 증대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부산 사하구 하단마을’은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주요 어획 자원인 까치복을 활용한 ‘까치복 맑은탕 간편조리세트(밀키트)’ 개발을 주도함으로써 어업 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어업 중심의 경제활동만으로는 침체된 어촌의 경제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어촌의 경제활성화는 어촌을 기반으로 하지만 어업에서 벗어나 어촌이 지니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어촌이 지니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어촌의 경제활성화를 시도할 때 그 열매가 개인이 아니라 어촌공동체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촌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경영체가 어촌비즈니스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촌비즈니스가 어촌의 경제활성화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